



## 무령왕의 허리띠

무령왕의 허리띠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어.

그 중 아래 사진 속 도깨비와 두꺼비를 찾아 표시해보렴. 도깨비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는데 오래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란다.



## 웅진 구석구석!





안녕! 난 무령왕이란다!

웅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난 백제 25대왕이야. 흠..흠.. 내 자랑같지만 난 한강지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겨 힘이 약해진 백제를 다시 발전하게 만든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 고구려의 군사를 물리쳤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는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나는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중국 양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무역을 통해 백제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시켰단다.

오늘 여러분들이 웅진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을 도와 줄 친구를 데리고 왔단다.



안녕하세요. 전 무령왕릉을 지키는 수호동물이에요.

날개와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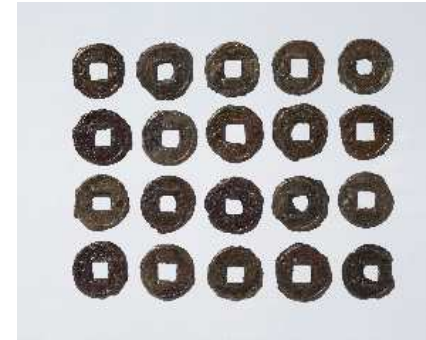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나타나 도와드릴거예요.

모두가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래!  
그럼 시작해볼까!



##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동전

무령왕릉의 모습과 나온 유물을 보면 백제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 많아. 벽돌로 쌓은 무령왕릉 구조는 중국 남조 양나라 지배계층 무덤의 모습이. 또 백제 도자기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중국제 도자기, 쇠로 만든 동전인 중국의 오수전 등이 나왔어. 왕과 왕비의 널 재료인 나무는 일본 특산인 금송(金松)이란다. 무령왕은 수입품을 좋아했던 사치스러운 왕이었을까?



양나라에서 발행한 오수전

왜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무령왕께서 처음 자기 자랑(소개) 할 때 글을 참고하시면 되요!



## 무령왕릉의 화려한 금제관식

3000여점의 유물이 나온 무령왕릉에는 화려한 금장식들도 많이 나왔어.

화려한 금관 장식들은 무령왕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지. 신라금관을 본 적이 있니? 신라금관 장식과 무령왕릉에서 나온 금제관식은 모양이 차이가 있지? 이 장식을 어떻게 매달아서 사용했을까? 또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봐.



1) 금제관식을 관에 어떻게 매달았을까?

2) 무령왕과 무령왕비 금제관식의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 :

차이점 :



너무 쉬워요, 임금님을 보시면 되요.



## 웅진성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가 공주에 있을 때 공주를 지키던 백제의 산성이야.

그 때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단다. 금서루를 지나 성을 돌아보면 성을 만든 재료는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돌로 성을 쌓은 것은 조선시대라고 해. 그렇다면 백제 시대에 성은 무엇을 재료로 성을 쌓았을까?



성의 곳곳에 백제시대에  (으)로 쌓은 성벽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 재료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쌓았답니다.



## 공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산성은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오늘의 서울)을 빼앗기자 수도로 정한 곳이야.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자 의자왕이 이 곳으로 와서 반격을 준비하기도 하였어. 그 이후에도 이 곳은 통일신라시대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인조가 몸을 피한 곳이기도 해.

공산성은 성으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많은 시기를 걸쳐 이용되었을까?

1)

2)



헉..헉..여기는 산 위라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저는 배 타는 것을 무서워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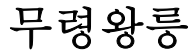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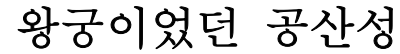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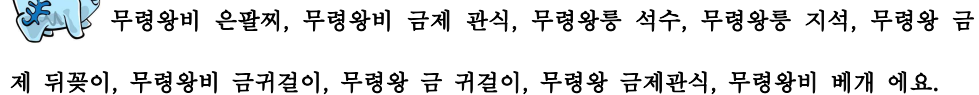
## 무령왕릉 지석

지석은 무덤 주인의 행적 등을 새겨놓은 돌판을 말해.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명문으로 시작하는 무령왕릉 지석은 2장이 발견되었지. 사람들은 이 지석의 내용으로 이곳이 무령왕릉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 무령왕은 62세 때인 523년 5월7일에 사망해 27개월 뒤인 525년 8월12일에 묻었으며, 무령왕비는 526년 11월에 사망해 역시 27개월 뒤인 529년 2월에 기존 무령왕릉을 다시 열어 무령왕 옆에 묻었단다. 이 지석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왜 만들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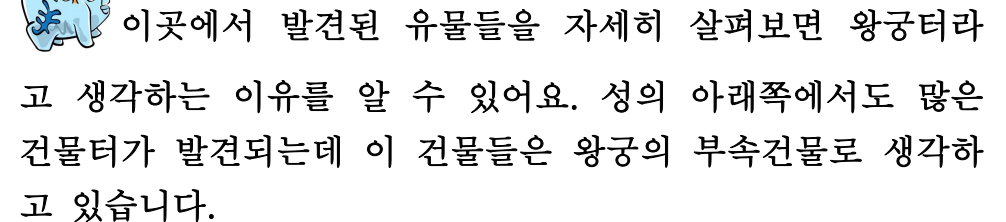
이 지석에는 ‘백제 사마왕이 돈 1만문으로 토지신 토왕, 토백 등에게 서쪽 땅을 사들여 묘를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노니’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illegible]

이 곳을 왕궁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2)	





## 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

성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 시설과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해. 하지만 성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외부와 드나들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만드는 것이 성문이야. 그래서 쳐들어온 적과 성을 지키는 군사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성문이란단다.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외부와 연락하거나 외부에서 군사들이나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문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문을 주로 사용한다. 남한산성에는 12개, 수원 화성에는 4개가 있는데, 공산성에서는 지금까지 1개가 발견되었어. 이 문의 이름은 무엇일까?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란단다. 하지만 산에 만든 산성의 특성상 전쟁이 길어지면 물이 부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리 연못을 파서 물을 저장해둔단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의 이름은 무엇일까?



영은사에서 금강쪽으로 걷다보면 이 문과 연못을 발견할 수 있어요.



## 송산리고분군

송산리고분군은 웅진 시기의 백제 왕릉이 있던 곳으로 7기의 고분이 정리되어 있어. 그 중 1호분~5호분은 돌을 쌓아올려 만든 석실분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쌓아 만든 전축분이야.

일제강점기에 공주에서 교사를 하던 가루베지은은 공주 부근의 유적을 마구 도굴하였는데, 자신 스스로 확인한 고분이 1,000여기라고 했어. 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도굴한 것이지.

특히 송산리 6호분에 대한 도굴은 총독부 관리에게조차 비난받았어.

이 무덤(송산리 6호분)을 발굴한 가루베는 출토 유물을 고스란히 자기가 챙기고 무덤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말끔히 치운 다음 총독부에는 이미 도굴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카루베는 강경에 있던 이 훔친 유물을 트럭에 싣고 대구로 가서 대구 남선전기 사장으로 골동품 수집에 열을 올렸던 오후라(小倉)와 함께 무슨 수를 썼는지 귀신같이 일본으로 가져갔다. 카루베는 이렇게 도둑질, 약탈한 유물을 가지고 『백제유적의 연구』라는 저서를 펴냈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314쪽

도굴과 발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도굴 :

2) 발굴 :



발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곳에서 나온 유물은 그 시대의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한 시대의 지표가 됩니다. 연대가 정확한 유물이 나오면 시대의 발전 흐름에 따라 다른 유물들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서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의 비워진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굴이 되면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지게 됩니다.